



제5장

윤리경영

01_ 청렴수기

윤리경영 01_청렴수기

신입사원의 눈으로 바라본 청렴세상

해외사업본부 해외사업2차 사원 임지원

-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면서 느끼게 된, 업무환경 속에 녹아들어 있던 청렴의 의미와 진정한 청렴이 무엇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서술함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단의 모습을 통해 앞으로 더욱 청렴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다짐에 대해 서술함

길고도 짧았던 추석을 지나 어느덧 10월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올해 첫 직장을 가지고 신입사원으로 근무하게 된 나는 요즘 부쩍 머릿속에 여러 기억들이 스쳐 지나간다. 생전 처음 다니게 된 직장, 처음으로 마주한 직장 선배들, 동기들, 믿겨지지 않으리만큼 빨리 흘러간 시간이지만 그 속에 많은 추억들과 깨달음들이 섞여 들어있다는 것은 부정 할 수 없다. 올해 1월 인턴으로 입사하여, 처음 동기들과 마주했던 순간부터 어느덧 익숙해진 사무실 내 책상위에서 글을 작성하는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너무도 생생하다.

불과 1년 전의 나를 떠올려보면, 지금 나의 상황과는 180도 달랐었다. 요즘 취업이 어렵다는 얘기는 수없이 들었지만,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조금은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지, 막상 '취준생'이라 불리는 취업준비생의 신분으로 취업준비를 하면서부터는 잔혹한 현실과 맞닥뜨려야 했다. 서류에서부터 탈락의 연속, 시험을 치러 가게 될 때는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나와 같은 취준생들을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뽑힐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다. 그 당시 나의 하루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런 취준생의 마음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들었던 건 심심찮게 들려오는 소위 '빡'으로 입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였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문들과 때때로 기사에 보도되는 채용비리 소식들을 접할 때면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 때의 힘들고 억울했던 마음 때문인지, 신입교육을 받을 때 '우리 공단은 채용에 있어 깨끗하다'는 한 부장님의 말씀이 허투루 들리지 않았다.

공단에 처음 입사하여 신입교육을 받을 때부터 근무하면서까지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청렴'에 대한 끝없는 강조였다. 아직 입사한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나도 '청렴'이라는 단어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것 같다. KR 청렴 10계명인 KR Clean 10훈을 배우고, 여러 청렴특강들을 들으며, 인턴기간에는 조원들과 청렴을 주제로 UCC제작도 하면서 청렴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순간들이 많았다. 그전에는 청렴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적도 없던 내가 공직자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고, 청렴이란 무엇이기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도 함께 생겼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는 주요 화두 중 하나가 청렴임은 틀림없는 것 같다. 연일 청렴과 관련된 보도들이 쏟아지고, 지금 당장 검색 창에 청렴이라는 단어만 쳐봐도 관련내용, 기사들이 날마다 새로 올라오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가 청렴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다면, 과연 우리들은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 할 수 있을까.

실제로 2016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176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52위에 그쳤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6 부패 인식도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우리 사회는 부패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가 보여주듯이 국민들은 우리사회의 청렴함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갈증들이 청렴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다.

처음 청렴에 대한 교육을 듣고 인지하기 시작했을 때는, 과연 나랑 큰 관련이 있는 일인지 크게 와 닿지 않았다. 나는 그저 일개 신입사원으로, 부패를 저지를 만한 권한이 애초에 없으니, 큰 관련이 없는 대상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때는 청렴의 의미를 그저 뉴스에 보도될 만한 큰 부정부패에 한정시켜 어렵פות이 생각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 입사하여 업무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우리의 일상적인 업무 속에 '청렴'이 가깝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실 나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시행된 이후 입사를 하였고 때문에, 지금의 분위기가 그저 당연하게 여겨졌었다. 가끔씩 부장님, 차장님들께서 말씀해주시는 과거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그러던 때가 있었구나 생각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차장님과 점심을 먹고 1층에 들어서서 이야기를 나누며 가고 있었는데 어느 양복차림의 젊은 두 직원이 '성심당'봉투를 양손에 들고 은행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대전역 부근에서 대전의 명물인 '성심당'봉투를 들고 가는 사람을 보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별 생각 없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차장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지나가는 말로 "예전에는 공단에도 저렇게 들고 오는 사람 많았었지, 물론 우리가 사갈 때도 있었고.."라고 하셨다. 물론 그 직원들은 우리 직원으로 보이지 않았고, 잠깐 은행에 불일이 있어 들린 건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떠올라서 하셨던 말씀이 나에게겐 작지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 당시,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설계변경시 시공사의 잘못을 알림으로써 정당한 대가 지급

호남본부 시설관리처 과장 정찬용

- 설계변경시 시공사가 잘못된 낙찰율로 자료를 작성하여 정확한 수치를 알려줌으로써 정당한 금액(시공사 요청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설계변경하였음.
- 계약자와 더치페이로 식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 필요.

‘청렴한 업무추진을 통한 고객감동 사례’란 말을 읽으면서 2년전 그 일이 떠올랐다. 개량사업 시공 건의 공사관리를 담당하면서 증액이 큰 설계변경을 처리하게 됐다. 증액의 사유는 설계사의 잘못에 있는데 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시공사는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었다. 설계서의 품질이 낮아 시공사가 현장조사를 다시 하고 다수의 도면을 새로 그리고 단가산출서를 다시 만들어야 했던 것이다. 심지어는 설계용역을 다시 하여 완성된 성과물을 시공사에 전달하자는 의견이 나올 정도였으니까 일반적인 시공사라면 스스로 고생하지 않고 이 안을 택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구간의 궤도회로를 일부 개량하여 CTC 개통을 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었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외부기관이 봤을 때 공단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 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관계자 전원은 설계변경 쪽으로 가기로 결정하였다.

두 번의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호남본부 입장은 증액이 커짐으로써 겪게 될 나중의 문제 때문에 모든 자료를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최초 계약금액 대비 최종계약금액의 증가율은 항상 대외기관 감사자료나 국정감사 요청자료의 단골메뉴인 탓이다. 나와 부장은 합당하지 않은 공종이 있는지, 재료비와 노무비의 단가는 적정한지 눈에 불을 켜고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시공사와의 생각의 차이는 피할 수가 없었고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갔다. 하지만 증액 자체가 원체 커서 그대로 인정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나와 부장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했다.

그런데 검토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였다. 신규공종에 대하여 재료비와 노무비를, 적정단가에 낙찰율을 곱해서 산정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는데 모든 자료의 낙찰율이 잘못 적용된 것이다. 실제 낙찰율보다 큰 것으로 계산하였다면 설계변경 요구금액이 낮아지는 것이어서 문제가 안되지만 시공사는 그 반대의 경우로 계산을 해왔다. 가뜰이나 증액이 커서 머리가 아픈데 낙찰율을 정정하면 증액이 더 커지게 된 것이다. 여기서 나의 고민은 시작되었다. 이것을 안 밝히고 그냥 진행한다면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고정정하게 되면

나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의 모습만 봐왔기 때문인지, 공단을 방문하는 협력사 및 방문고객들이 무언가를 들고 온다거나 하는 모습을 본적이 없었으며,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생각을 해보니 그랬다. 우리는 단순히 친구 집을 방문하는 등 누군가의 집을 방문하게 될 때, 무언가를 사들고 가는 것이 예의라고 어릴 때부터 배우지 않았었는가. 그렇다면 과거에 손님으로 어딘가를 방문할 때, 빵 몇 개라고 들고 가는 것이 예의라는 생각은 우리의 문화로써는 당연한 것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제야 청탁금지법이 의도했던 바가 무엇인지 조금 깨달을 수 있었다. 오고가는 精을 생각하는 우리의 전통은 물론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러한 문화로 인해 청렴함의 경계가 모호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 성의입니다”는 말과 함께 작은 선물을 받았을 때, 이를 거부하자니 너무 정 없는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고, 그렇다고 받자니 청렴의 경계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청탁금지법이 도입될 때 오히려 이를 환영했던 건 교사, 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자에 속하는 쪽이었다고 한다. 애매했던 경계를 법을 통해 정해놓으니 주지 않아도 되는, 혹은 받지 않아도 되는 명분이 생겨 서로 편해졌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진정한 의미의 청렴을 지킨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부패,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의미뿐 아니라, 사소한 부분이라 생각하여 주의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살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제야 조금씩 흩어져 있던 퍼즐조각들이 맞춰지듯이 그동안의 받았던 청렴교육들과 왜 신입사원 때부터 청렴의 자세에 대해 강조했는지에 대해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지금도 내 책상 한켠에는 신입교육 때 받았던 청렴거울이 놓여 있다. 항상 선배님들께서는 초심을 잃지 마라, 초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 변화중인 것은 사실이나 아직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 등에서 보여주는 현주소를 고려할 때 갈 길이 멀게 느껴진다. 이에 청렴 KR의 일원으로써 더 굳건히 청렴한 자세를 지켜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KR의 변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변화를 통해, 취준생 시절의 내가 가졌었던 공정함에 대한 의심이 후배들에게는 느껴지지 않도록 자타공인 청렴한 국가가 되길 바래본다.

오늘도 부장님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린다. 업무관계자들로부터 오는 전화들일 것이다. 그러면 으레 상대방은“식사나 한 끼 하시죠.”하며 인사치레를 할 것이다. 그러면 부장님께선 어김없이“아휴, 내가 거창한곳에서 대접은 못해도 공단 오시면 5층에서 맛있는 밥 한번 먹읍시다!”하며 넉살좋게 말씀하신다. 그 유쾌하신 목소리가 오늘따라 더 당당하게 들린다. 사소하게 느끼던 부분들에 스며들고 있었던 ‘청렴’, 어느새 그 세상은 우리에게 멀지않은 곳에 닿아 있었다.

공직자는 업무수행 시 청렴으로 무장하자

강원본부 재산지원처 차장 이창재

- 사회공헌 담당자로서 공헌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봉사자와 수혜자의 경계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청렴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음
- 이를 통해 크고 작음을 떠나 공직자는 맡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의 혈세를 집행한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시키고자 함

저는 강원본부 사회공헌 담당자입니다. 2016년 7월 강원본부는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마을과 1사 1촌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직원들과 마을 주민들은 함께 마을호수 및 진입로를 정비하고, 부족한 농가에 일손을 지원하면서 좋은 유대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그 해 11월 김장행사를 앞두고 자매마을과 공동으로 김장을 담그고 김치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면 농가소득에 도움을 주고, 어려운 이웃에게 김치를 지원하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겠다 싶어 '자매마을 공동 김장 담그기' 사회공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김장 담그기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김치의 양을 정해야 하는데 마을 부녀회장과 협의한 결과 배추 100포기 20리터 김치통 10개 분량으로 결정하고 전달할 태장2동 주민센터에 전달할 수량을 통보했습니다.

김장 담그기 당일 저는 20리터 김치통 10개를 준비했고, 본부장을 비롯해 공단 직원 20여명과 마을주민 10여명이 마을회관에서 김장 담그기를 시작했습니다. 김장이 거의 끝나가고 포장을 하는데 김치통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좋은 일을 한다고 하니 마을에서 배추를 넉넉하게 120포기를 준비했고, 양념 및 배추크기 등을 감안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김치통을 추가로 구입하려면 시내 대형마트로 가야해서 족히 1시간은 걸릴 것 같고 전달해야할 시간도 정해져 있어 가까운 슈퍼에서 김장비닐을 구입해 남은 김치를 구내식당에 전달해 반찬으로 사용하도록 할 생각이었습니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시던 본부장님께서 김장비닐에 담으면 태장동에 전달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으셔서 김치 량을 예측을 잘 못 해서 김치통을 준비하지 못했고 추가로 구입하려면 시내까지 가야하며 이미 태장동에

증액 규모는 더 커지는 것이다. 나의 고민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정정하는 게 바른 길이라고 판단하였다. 설계변경 과정에서 협의율을 주장하지 않고(보통 협의율은 낙찰율보다 높다) 낙찰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시공사에서 양보한 것인데 낙찰율을 낮추어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확실하다고 생각했다.

이 사실을 부장에게 바로 보고하였는데 부장하고 나하고 생각이 달랐다. 계약자가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이더라도 그대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표현하셨다. 난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였으며 결국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면서 '낙찰율 정정' 쪽으로 결론을 정했다. 낙찰율을 정정하여 자료를 재작성하라는 말을 듣고 시공사 소장의 기분은 어떠했을지 상상해본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공단에 고마웠을 것 같다. 발주처에서 자신의 실수를 좋은 쪽으로 바로잡아줬으니 신선한 기분이 들었을 것도 같다.

그 시점 이후로 설계변경 과정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발주처가 고마운 일을 하니 태도가 온화해진 것은 아닐까. 계약자는 호남본부가 인정하기 애매한 부분(기준이나 규정에 없는 소소한 일들)을 삭제하고 심의자료를 작성했으며 두 번의 설계변경심의위원회는 무리없이 원안 찬성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설계변경을 완료하였다.

CTC 개통을 맞추기 위하여 일이 집중될 때는 한 주에 삼 일씩도 야간근무를 했던 그때가 떠오른다. 시공사는 열과 성을 다해 차단작업을 준비해 주었고 시설물검증시험은 큰 장애없이 완료되었다. 아주 오래된 기존선에 뭔가 개량을 한다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란 것도 깨달았고 어려운 과업을 무리없이 소화하기 위하여 시공사와 감리단의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다. 설계변경시 낙찰율 정정의 건으로 얻은 신뢰가 성공적인 사업수행으로 귀결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억지는 아닐 것이다. 내가 누구 도와준다면 그 또한 나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다. 법을 지키며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웃음과 이익을 존중하는 태도는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상대가 행복하면 나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을 일도 없고 일을 소홀히, 또는 불안전하게 할 것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일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면서 되는 것은 된다,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분명하고 신속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뜻이다.

청렴에 대한 생각은 계속 개선되고 있지만 계약자와 우리가 윈윈하기 위하여 그들의 VOC를 세심히 들을 필요가 있다. 나도 일하다 보면 식사하는 휴식시간에 업무나 개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계약자가 다수이다. 무조건적으로 안된다고 할 게 아니라 더치페이로 하되 식사전 담당자에게 연락(예를 들어 SMS)하고 식사후 얼마를 어떻게 더치페이했다는 내용을 전송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어떻게 제안하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전달하기로 한 김치통은 마련했으니 남은 김치는 구내식당에 보관해 반찬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부장께서 불호령을 내리시며 ‘사회공헌활동을 한다면서 복지기금을 직원들 반찬 만드는데 쓰니까?, 김영란법 발효된 거 모르세요, 식당에 보내는 것도 어느 정도지 반이나 남았는데 당장 김치통 추가로 사다가 담으세요’

저는 화끈거리는 얼굴로 차를 몰아 시내로 달려갔습니다. 시내로 가면서 그동안 실질적인 공헌활동을 하려고 최선을 다 했었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 면박을 당했다 생각하니 본부장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준비한 김치통에 김치를 담아 태장동 주민센터에 전달하는데 동장님께서 10통으로 알고 있었는데 20통이나 준비했냐고 너무 고마워하셨습니다.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행사를 모두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본부장께서 ‘오늘 수고 많았어요, 마을 주민들도 보고 있고 김영란법도 시행되고 해서 일부러 큰소리로 말씀드렸어요’저는 본부장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청렴이란 아주 작은 일에서도 공·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혈세를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듣기 싫더라도 관리자는 청렴하게 일처리 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지시하는 것이 진짜 직원을 위하는 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맡은 업무에 있어서 예산집행을 엄중하게 하고, 공·사를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사례를 통해 많은 직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업무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02_ 청렴우수제도

윤리경영 02_청렴우수제도

건설분야 부패예방을 위한 현장관리 강화

권익위 공공기관 청렴시책 우수사례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국민권익위 컨설팅('15년), 자체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건설분야 부패사건 지속 발생

최근 발생한 부패사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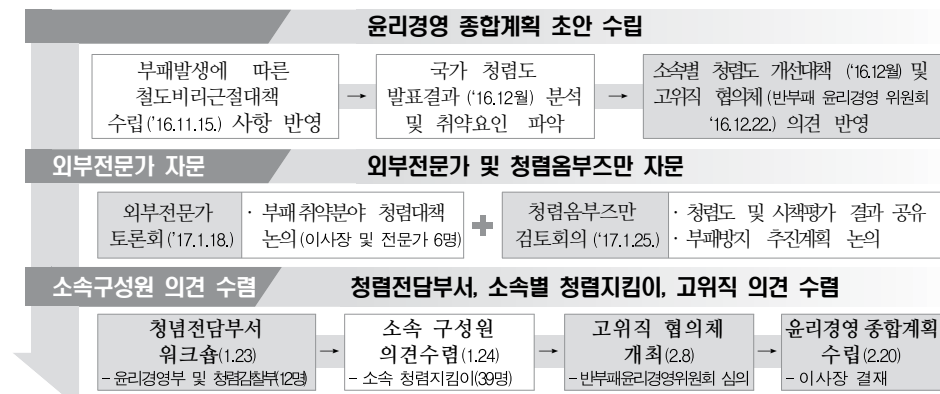
- * 원도급사의 고유권한인 하도급사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
- * 원설계자가 아닌 특정업체에 보완설계를 맡기고 금품 수수
- * 터널 굴착 공법(특정공법) 설계변경 및 시공과 관련된 부패행위 발생

- 2016년 국민권익위 청렴도 조사 결과 현장시공관리·감독(8.09점), 품질·안전점검(5.48점) 등 건설분야 청렴도가 낮게 나타남
- 건설분야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부패예방 및 공단 신뢰 회복 추진

추진방법

- 외부 전문가 및 내부 임직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윤리경영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16.11월~'17.2월)

< “윤리경영 종합계획” 수립 체계도 >



추진내용

1. 원도급사 뿐만 아니라 하도급사까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부패행위자 및 부패행위 유발업체 철도현장 퇴출제 시행

개선이유

건설분야 협력사가 발주청에 금품제공, 협력사 간의 부패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민간부문 청렴성 제고 기여

- 원도급사 뿐만 아니라 하도급사까지 부패행위 유발업체 현장 퇴출
 - (원도급사) 청렴계약 위반(부패행위 적발) 시 입찰참가 제한(3개월~6개월), 입찰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참여업체는 △3점, 참여기술자는 △2점 감점
 - (하도급사) 부패행위 유발 하도급업체 하도급계약 심사를 의무화 하고, 심사 시 건당 △3점 감점으로 참여 제한('16.8월)
 - * 심사 대상 : (당초) 82% 저가하도급 → (변경) 82% 저가하도급, 부패행위 유발업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6조(청렴계약 위반시 제재조치) ①공단은 청렴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 상대방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및 공단의 기준에 따른 감점조치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공단은 청렴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제7조(하도급 등 계약) ①계약상대방은 제3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 등 계약의 상대방이 청렴계약의무를 위반하여 공단이 공고 또는 통보한 업체와는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비위행위자의 참여제한) ①공단은 계약상대방이 청렴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청렴계약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

제4조 (하도급계약 심사대상 공사) ① 공단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건설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사고유발하도급업체, 부패행위유발 하도급업체, 체불이력하도급업체를 하도급계약 심사대상 공사로 정하고, "별표3"에 따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자 평가 및 이력관리를 통해 부패행위 유발자 철도현장 퇴출
 - 철도현장에 참여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시공참여자에 평가(연 2회) 하는 건설기술자(감리, 시공) 평가 제도 도입('16.12월)
 - 부패·부실시공 목인 등 고의적인 관리부실 발생시 참여기술자는 철도현장에서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 건설현장 참여기술자 이력관리시스템 구축('16.12월)
 - 철도의 시공 및 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에 대한 부패이력관리를 통해 부패행위자는 철도현장 재진입 방지
 - * 참여기술자 이력관리시스템 「붙임」 참고

2. 직무관련자에 대한 알선·청탁 금지 도입으로 공단 직원의 민간청탁 차단('17.08.16, 행동강령 개정)

개선이유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등 내부 규정에 민간(업무관련자)에 대한 청탁·알선 금지 조항이 없어 공단 직원이 협력사(시공사, 감리사)에게 청탁 시 제재 미흡

● 알선·청탁 금지 대상에 직무관련자(시공사, 감리사 등)를 추가하여 하도급사 선정 개입 등 민간 청탁 근절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조 (알선·청탁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 및 직무관련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보완설계 시행절차 마련으로 부패유발요인 제거('17.05.23, 절차서 개정)

개선이유 변경설계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선정토록 한 부패사건 발생

● 재설계 및 변경설계는 원설계자가 수행하거나, 별도 용역발주를 시행하여 특정업체 선정 청탁 방지

현장설계변경관리 시공관리절차서 [참고3] 일반사항
8. 현장설계변경사항 중 재설계 및 변경설계 용역 (1) 변경설계가 필요한 경우 가급적 원설계자가 수행토록 한다. (2) 지역본부장은 FCN방식에 의한 중요사항 현장설계변경 등에 대한 재설계 및 변경설계는 가능한 별도 용역발주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특정공법 선정 심의 절차 및 제재기준 신설로 투명성 제고('17.02.16,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개정)

개선이유 특정공법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부패사건 발생

● 특정공법 선정 심의 절차를 신설

- 설계변경 시 기술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심의 시 적용가능 공법을 4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비교·검토 실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별표12) 특정공법(자재) 및 주요공법 심의절차	
①심의 요청 전 요청부서 준비사항	• 적용 가능한 우수 공법 중 4개 선정 * 4개 미만일 경우에는 있는 수만큼 선정

● 특정공법 심의관련 제재기준을 신설하여 부패행위 예방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별표13) 특정공법(자재) 및 주요공법 심의관련 제재기준		
□ 비리 등에 대한 제재기준		
위 반 내 용	제재기준	비 고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1년	당해공법 및 해당 업체 공법 추천 정지(결정일 기준 1년)
2. 사전신고 없이 공법이 선정된 후 1년 이내 심의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1년	당해공법 및 해당 업체 공법 추천 정지(결정일 기준)
3. 제척대상에 해당되나 위원 본인이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촉	차기 자문위원 선정 배제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이 비리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년	당해공법 및 해당 업체 공법 추천 정지(결정일 기준 3년)
5. 그 밖의 건설관계법령 및 청렴관련 기준 등에 위반한 경우	해당 법령 등 준용	-

5. 터널 특수 공법 관리 절차서 제정으로 임의 공법 변경을 통한 공사비 과다 수령 등의 부패 예방('17.01.03, 절차서 제정)

개선이유 협력사에서 터널 특수공법으로 설계된 구간을 다른 공법으로 변경 시공하고 차액 편취 사건 발생

● 터널 특수굴착공법 시공관리 절차 제정

- 시공 전에 터널특수굴착공법 공사비와 지장물 보상비(가옥 이전 등)를 재조사하여 특수공법 적용 최소화
 - * 터널특수굴착공법은 공사현장 인근 주거지, 축사 등의 소음·진동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 터널 시공관리 및 증빙서류 관리 강화로 부당수령 방지
 - 터널 공사 시 굴착면마다 또는 굴착 1m마다 현장 실측(사진 첨부)
 -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한 기성검사 시 상세검측사진, 장비임대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토록 의무화
 - 매월 1회 이상 기술지원 감리 점검 시행, 공단 부장 및 공사관리관은 취약개소 점검(2주 1회) 시 관리 적정성 여부 확인

터널특수굴착공법 시공관리절차서

1. 지장물 재조사

- 1.1 책임건설사업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후 30일 이내 설계 당시 지장물 현황과 실제 시공 시점에서의 지장물 현황을 재조사하여 비교 검토

5. 현장 점검 사항

- 5.1 매 막장면(천공 후) 마다 반드시 현장 실측 확인(Hold Point 지정)하고 막장면 구분이 난이한 경우, 굴착 1m마다 검측 시행

* 기성검사 시 상세검측사진, 장비임대계약서, 세금계산서 첨부

- 5.2 공법 착수부터 완료 시 까지 매월 1회 이상 기술지원감리 점검 시행

- 5.3 담당PM부장 및 공사관리관은 취약개소 점검 시 특수굴착 중인 터널의 막장면 관리 적정성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붙임 : 건설기술자 이력관리시스템

파급효과

- 부패행위자 및 유발업체 현장퇴출제 시행으로 협력사 직원들에게 부패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민간까지 청렴의식 향상 유도
- 갑의 지위에 있는 공단직원들이 협력사(시공사 등)에 할 수 있는 부정청탁을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제재함으로써 공직자의 민간분야 부정청탁 근절
- 보완설계 절차 마련, 특정공법 선정 비교·검토 및 심의 강화, 부패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으로 특정업체가 시공사·설계사 등에 행해지던 청탁을 근절시키고 업체 간에 공정 경쟁 환경 조성
- 터널 특수굴착공법 절차서 제정으로 국가예산 낭비 요인 제거

추진 근거

근거 종류	문서명	시행일자	문서번호
계약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개정	'17. 04. 25	계약처-5683
사규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17. 08. 16	감사실-2275
절차서	현장설계변경관리 시공관리절차서 개정	'17. 05. 23	고속철도처-1407
사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개정	'17. 02. 16	건설계획처-701
절차서	터널특수굴착공법 시공관리절차서 제정	'17. 01. 03	건설계획처-61

설계변경 심의제도 개선을 통한 부정 청탁 사전차단

건설본부 고속철도처

- 설계변경 심의위원을 당초 외부 100%에서 내·외부 50%로 구성하고 공단 관련부서 제척 및 민간업체 20%이내로 심의위원 제한하여 공정한 심의시행 가능토록 개선
- 심의안건 사전설명회 시행 및 심의자료 본사 직접 배부를 통한 시공사와 심의위원 간 불필요한 사전접촉 차단으로 심의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

추진배경

- 특정공구에서 발생한 보완설계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슈퍼웨이 실시공 의혹, 터널공사 설계변경(복선→단선) 변경 등 공사비 증감이 크게 발생하는 설계변경과정에서 많은 비위·부패 위험에 노출
- 사업추진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현장설계변경심의시 설계사 또는 시공사의 이익에 따라 부정청탁 발생우려 사전 차단 필요
 - － 심의목적 : 설계변경 발생 시 해당 설계변경의 적정성과 채택(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 － 심의대상 : 교량, 터널, 건물, 입체교차 시설의 공법·형식 변경 및 신설·폐지·연장에 관한 사항 등

주요내용

-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내·외부 심의위원 구성 개선
 - － 당초 외부위원 100%를 외부위원 50% + 내부위원 50%로 하고, 심의위원을 위원장 선임에서 심의위원 인력 POOL에서 추천으로 제도 개선

구 분	현 행	개 선	비고
위원구성	외부위원 100%	외부위원 50% 미만 내부위원 50% 이상	토목직 2~3급 15년 이상
위원위촉	위원장 “선임”	인력 POOL “추천”	

* 외부위원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 분야별 5배수 추천하고, 추천순으로 전화섭외 선정

- 현장설계변경 안건 설명회 시행으로 시공사 및 감리단 등의 심의위원 개별접촉 최소화로 투명성 제고

구 분	시행	장 소	참석범위	비고
현장설계변경 안건 설명회	심의시행 7 ~ 10일전	본사 또는 지역본부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부 심의위원 • 공사관리관 • 필요시 건설책임기술자 등 	

- 위원선정시 공단 추천함(주사위) 또는 프로그램을 활용 5배수를 추천 전화섭외로 선정하되 청렴지킴이를 참여시켜 투명성 확보
- 심의 소관부서 직원 제외(본사 주관부서, 지역 소관 처) 및 민간업체(설계·감리사 등) 소속은 전체 인원의 20% 이내로 제한
- 심의자료 배부를 본사 심의주관부서에서 시행하여 시공사, 감리단이 심의위원의 개별접촉을 원칙적으로 차단

개선효과

- 현장설계변경 심의위원 구성 개선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시행
 - － 당초 외부위원 100%를 외부위원 50% + 내부위원 50%로 개선하여 공단 직원들도 심의에 참여토록 하여 학연·지연을 통한 부당한 청탁을 해소
 - － 책임감 높은 공단 직원의 심의위원 참여로 인한 기술역량 강화 및 안건의 면밀한 검토로 심의 내실화
- 설계변경 안건 설명회를 통한 심의위원 개별 접촉 최소화
 - － 당초 심의시 심의안건에 대하여 시공사 또는 감리단 직원이 위원에게 방문 설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학연·지역을 통한 청탁을 사전에 차단
 - － 시공사 또는 감리단도 외부위원의 부당한 청탁 또는 요구에 대하여 차단가능하므로 심의위원 방문에 따른 심적 부담 해소
- 심의자료 본사 심의주관부서 배부로 협력사 접촉 차단 및 업무 간소화
 - － 안건별로 각각 시공사가 배부시 시공사가 심의위원을 저촉하게 되고, 심의자료가 일부 배송지연 되는 등 문제점 발생
 - － 심의자료를 본사가 일괄배부함으로써 시공사의 심의위원 저촉 차단 및 심의자료 배부 지연 방지 및 시공사 업무 간소화
- 인력 POOL에서 추천·선정하므로 심의위원 선정 투명화
 - － 심의위원 선임과정을 투명성 확보로 학연이나 인맥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 해소
 - ※ 추천시 청렴지킴이 입회하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위원 선정

- 관련부서 제척 및 민간업체 참여 최소화로 신뢰성 높은 심의가능
 - 안건별로 각각 시공사가 배부시 시공사가 심의위원을 저촉하게 되고, 심의자료가 일부 배송지연 되는 등 문제점 발생
 - 심의자료를 본사가 일괄배부함으로써 시공사의 심의위원 저촉 차단 및 심의자료 배부 지연 방지 및 시공사 업무 간소화

기타사항

-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위원선정으로 철도신뢰 회복 및 부패·비리가 사전 차단 되도록 적극적으로 원리원칙에 따라 현장설계변경 심의시행
- 심의관련 심의위원 및 공단 직원들로부터 VOC 취득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예정